

# 훈련도 놀이처럼... 함평서 영그는 'KIA V12'의 꿈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2019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24일 실내 연습장에서 박흥식 2군 감독(왼쪽)과 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데뷔 앞둔 신인들·재활 중인 이명기·백용환 등 챌린저스필드서 구슬땀 정성훈·앤서니 등 신입 코치진 선수들과 소통·스킨십 확대 노하우 공유

함평 챌린저스 필드가 '호랑이 군단'의 신나는 야구 놀이터가 되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7일 함평 챌린저스 필드에서 합동 훈련을 시작했다. 12월과 1월은 KBO 리그의 비활동기간이지만 프로 데뷔를 앞둔 신인들과 군제대 선수, 재활군 선수들의 훈련은 예외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 캠프 합류를 확정된 신인 투수 김기훈과 장지수 등 '아기 호랑이'들과 발목 수술 후 재활 중인 외야수 이명기와 무릎 재활 중인 포수 백용환, 군에서 전역한 황대안·박찬호·후해

진(개명 전 윤원주) 등이 챌린저스필드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오전에 웨이트와 체력에 초점을 맞춰 훈련하는 선수들은 기술 훈련과 맞춤 훈련을 하면서 오후를 보낸다. 해가 저두 실내 연습장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클럽 하우스에서 지내는 선수들은 저녁 식사 이후 야간 훈련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함평에서 공익 근무 중인 투수 박서준도 퇴근 후 야간 훈련에 동참하는 등 챌린저스필드는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돌아간다. 최고의 실내 연습장 시설과 재활 시설로 선수들

이 마음껏 훈련을 하고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편을 깔아놓은 KIA는 무작위로 다양한 변화구를 뿌리는 최신틱 피칭 머신도 들여놓으면서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한 KIA는 '변화'와 '자아 발전'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유망주들의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KIA 2군은 올 시즌 코치진에 대폭적인 변화를 줬다. 정성훈, 박정철, 박기남 등 '신입 코치'에 장태수, 양일환 등 경험 많은 코치들로 큰 틀을 바꿨다. 여기에 KIA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를 처음 코치로 영입하는 신선한 도전도 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유쾌한 모습으로 사랑을 받았던 앤서니 르루다. 박흥식 2군 감독은 "선수들과 소통, 스킨십을 많

이 하고 코치들끼리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선수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코치들이 되어야 한다. 그게 큰일은 아니다. 지적할 부분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면서 의논하는 등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은 배려와 감동을 느낀다"며 "기술적인 지도도 필요하지만 선수들이 야구장에 나와서 유니폼을 입고, 발전해 나가는 게 즐겁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도록 하는 훈련도 육성 전략 중 하나다. 박 감독은 "기존의 짜여진 연습을 줄이는 대신 창의력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늘렸다. 이렇게 하면 자연히 선수들이 코치를 찾게 된다"며 "선수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코치들을

찾아서 해야 한다. 선수들이 코치를 많이 괴롭혀야 한다"고 웃었다. 일률적인 스케줄과 지도를 지양하고, 소통을 통해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면서 함평 분위기는 밝고 뜨겁다. 선수들은 박 감독에게 "대만(캠프)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말도 스스로없이 하면서 유쾌한 경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챌린저스 필드의 경쟁은 내달 1일 제2라운드를 맞는다. 이날 1군 캠프단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 캠프를 시작하게 되면서, 오키나와 캠프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들은 함평으로 이동해 2019시즌 공식 훈련을 시작하게 된다. 이 중 30여명은 2월 9일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 2군 캠프를 치를 예정이다 /함평·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전지훈련 '공'과의 싸움

KBO, 반발력 낮춘 새 공인구 도입...적응력 따라 올 성적 좌우

올해 프로야구 10개 구단 선수들이 해외 현지 훈련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늘었다. 반발계수를 줄인 새 공인구에 적응하는 일이다. KBO 사무국은 극심한 타구투저 현상을 깨뜨리고자 공인구 반발계수 허용 범위를 낮춘 새 공을 2019년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에 사용한다. 반발계수를 낮춰 타구 비거리를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 새 KBO 공인구의 반발계수 허용범위는 기존 0.4134~0.4374에서 일본프로야구(NPB)와 같은 0.4034~0.4234로 줄였다. 반발계수를 조정해 데서 끝난 게 아니다. 공의 크기가 커졌다. 또 공 표면에 도드라진 실밥의 솔기 높이를 낮추고 폭도 넓혔다. KBO 사무국의 관계자는 24일 "그간 KBO리그는 메이저리거나 일본프로야구보다 작은 공을 사용했다"며 "공인구 둘레 최대치가 235mm라고 볼 때 미국과 일본은 234mm 공을 썼다면, 우리 공의 최대치는 233mm였다"고 설명했다. 반발계수를 줄인 KBO리그 새 공인구의 크기는 미국, 일본과 같은 둘레 234mm로 1mm 커졌다. KBO 사무국은 이달 말 해외로 떠나는 10개 구단에 10~15박스씩 새 공인구를 보내 선수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퓨처스(2군)리그 선수들도 스프링캠프에서 1군 선수들과 같은 새 공인구로

시즌을 대비한다. 선발대 형식으로 이미 미국, 호주 등에 도착해 훈련을 시작한 투수와 타자들은 새 공인구에 낯설게 반응했다. 한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야수보다 훨씬 예민한 투수들은 새 공인구가 커진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타자들은 확실히 공을 쳐 보니 예전 공보다 덜 뻗어간다고 평가했다. KBO 측은 "반발계수를 줄이면서 공기저항 등을 고려해 솔기의 폭과 높이에 조정했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공을 KBO리그 투수들도 사용하지는 취지로 새 공인구를 준비했다"고 했다. 10개 구단 선수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새 공인구를 접한 터라 스프링캠프, 시범경기에서 얼마만큼 적응력을 높이느냐가 올해 농사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수도권 구단의 한 관계자는 "이기기 위해 각 구단이 준비하는 야구 스타일은 물론 전반적인 KBO의 트렌드도 바뀔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훈련과 장타에 의존하던 야구에서 작전과 짜내기를 중시하는 야구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 매길로이 "최호성 닳시꾼 스윙 좋은 기술"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사진)가 '닳시꾼' 최호성(45)의 스윙을 "기술적으로 좋은 스윙"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호아의 토리파인스 골프클럽에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사전 기자회견에서 최호성의 스윙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전날 타이거 우즈(미국)는 같은 질문에 "놀라운 스윙이다. 보기만 해도 허리가 아프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지만, 매길로이는 늘 그렇듯이 푹 부러진 자기 생각을 밝혔다. 매길로이는 "(최호성은) 임팩트 순간까지도 볼

에 시선을 떼지 않는다. 기술적으로는 좋은 스윙"이라면서 "임팩트 이후 동작은 어떻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길로이는 그러나 "좋은 스윙을 지녔다고 해서 그 선수가 PGA투어 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8일부터 열리는 PGA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 최호성이 초청받은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전날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최호성의 경기가 기대된다"고 덕담을 했던 우즈와 사투 달랐다. /연합뉴스

## 47세 이치로 다시 댈다

MLB 시애틀 마이너리그 계약

올해 10월이면 만 46세가 되는 일본인 타격 기계 스즈키 이치로가 미국프로야구(MLB) 시애틀 매리너스 구단과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다. 24일 MLB닷컴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치로는 시애틀과 마이너리그 계약에 합의했다. 시애틀은 이치로가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들면

연봉 75만 달러(약 8억5천만원)를 주기로 했다. 이치로는 3월 20~21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오릭스 에슬레틱스와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MLB 사무국은 해외에서 열리는 정규리그 경기에 한해 빅리그 로스터를 25명에서 28명으로 3명 늘려준다. 이 덕분에 이치로는 빅리그 로스터에 합류할 수 있다. 다만, 시애틀이 불박이 외야수 3명을 이미 확정된 터라 댈 자리가 없는 이치로가 일본 특별경기 이후 로스터 감소에도 계속 빅리그에 남을지는 알 수 없다. /연합뉴스